대한방사선기술학회
1992년도
秋季學術大會 發表主題 및 抄錄集

특별강연

<1> 따뜻한 마음으로 醫療에 對應하는 放射線士의 姿勢
— 放射線業務의 소프트웨어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장

許　　俊

의료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의료는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전문세분화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醫療技術者의 탄생과 병원경영은 의료비 억제 정책 중에서도 고가의 의료기기의 도입 등 많은 요소가 작용되어, 의료의 현장과 종사자간의 팀워크는 불안한 상태가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경영을 위한 채산성확보와 첨단기기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고, 疾病을 진료하는데만 치중하고 환자는 度外視하는 풍조 등이 있어 「患者不在의 의료」라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不平은 개선이 될 수 있는 시발점이라 하겠으며, 그 개선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요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현대의 특성은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그 규모는 거대화되고 있다. 이에 따르는 요망은 秒 단위로 빠라져서 이에 대응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이 현대사회의 소프트웨어로서 각기 직장에서 그 시비가 논의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다.

현재 의료기관이 환자중심의 의료를 지향하고 있을 때에 팀의료 중에서 放射線科의 업무와 放射線士가 환자의 요망에 얼마나 보답하고 있는지를 반성하고 부족한 점은 시정해야 할 것이다. 방사선사는 기기를 취급하는 하드웨어 이외에 원활하게 방사선을 이용하여 「환자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가」를 방사선사 스스로가 찾아서 '환자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자기 스스로가 변조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자를 자기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의료에 대응하는 자세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